

한국체육대학학생의 구강손상경험과 치아보호장치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박용석*, 오상천, 동진근 원광대학교 치과대학 치과보철학교실

1. 서론

본 연구는 구강외상의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운동선수들의 구강 손상의 위험을 줄이고 보다 나은 운동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관련 학과가 많은 한국체육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구강외상의 손상경험과 부위, 정도, 치아보호장치 사용실태, 그리고 치아보호장치에 대한 인식도 등을 조사하여 다소의 지견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연구대상은 한국체육대학 학생 중 운동 중 구강외상의 가능성이 있는 체육학과, 사회체육학과, 태권도학과, 청소년지도학과, 안전관리학과, 건강관리학과 1-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지를 배부한 총 조사대상자는 500명이었으며 이중에서 결측치가 너무 많거나 신뢰성이 없는 설문응답자를 제외한 실제 연구대상자는 442명이었다. 조사방법은 개별자기 기입법에 의한 설문조사법이었고 조사항목은 13개 항목이었다.

학과, 성명, 학년, 나이, 성별, 주종목, 부종목, 운동경력 등의 개인적인 정보 이외에 조사 항목은 한국체육대학 학생의 외상경험, 외상의 원인, 손상부위 및 정도, 치아보호장치의 장착경험, 운동시 치아보호장치의 사용유무, 치아보호장치의 구입경로, 치아보호장치 사용 시 문제점, 치아보호장치의 효과에 대한 인식과 앞으로의 사용의향 등에 대한 의견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3. 연구결과

1. 남학생 중 치아나 악안면의 외상경험자는 설문응답자 중 57.96%이었고 여학생은 39.06% 이었다.

2. 외상의 원인은 운동 중 52.15%, 싸움 26.72%, 부딪힘 23.70%, 넘어짐 18.10%, 교통사고 8.10%, 기타 3.44%순 이었다.

3. 외상의 종류는 입술이나 혀가 찢어졌다 52.29%, 치아가 흔들렸다 30.60%, 치아가 부러졌다 28.87%, 치아가 빠졌다 5.17%, 턱뼈가 부러졌다 1.72%, 기타 3.44%순 이었다.

4. 운동 시 일어난 구강외상경험의 종목별 비율은 권투 48%, 농구 42%, 태권도 38%, 스키 31%, 유도 25%, 육상 22%, 수영 19% 이었다.

5. 치아보호장치를 사용해본 경험이 있거나 현재 사용중인 학생은 5.88%이었다.

6. 치아보호장치를 사용 중 불편함을 느끼는 학생은 사용학생 중 73.07%이었다.

7.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비위가 상해서 38.46%, 말하기가 어려워서 26.92%, 호흡이 곤란해서 23.07%, 쉽게 빠져서 19.23%, 보기가 싫어서 15.38%, 입이 말라서 7.69%, 기타 3.84%순 이었다.